무등 plus 제 16 호

생동하는 교회 광주무등교회

교회창립 1985. 11. 23. GWANG JU MUDEUNG PRESBYTERIAN CHURCH 2024년 12월 29일(주일)

● **발행·인쇄인** : 오용선 ● **편집인** : 지형원 ●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19 ● **대표전화** 062-373-0034 FAX 376-6084 ● **인쇄처** : 푸른인쇄사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무엇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까?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며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까?

목사님의 설교일까? 아니면 찬양, 그것도 아니면 성도들의 친절함일까? 최근 미국의 한 기독교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처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행복한 얼굴로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사님의 설교나 찬송, 친절한 태도, 교회의 편리한 시설이 아니라 행복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어떤 지역에 처음 이사 온 사람이 경찰관에게 어떤 교회가 좋으냐고 물었더니 길 건너 교회를 가르쳐주더라는 것. 그래서 바로 곁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 길 건너에 있는 교회로 가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표정을 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보였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같은 설문은 아니지만 최근 한국교회연구센터가 주)지앤캠 리서치에 의뢰한 개신교인 가정의 가족 신앙조사(전국 19~59세 남녀 중 첫 교회 출석 시기가 초등학교 이전이며 현재 출석하고 있는 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시간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신앙적 생활에 영향을 미친 것'에 따르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66.4%) ▲미성년 시절 가족(가정) 외의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15.5%) ▲기타 (1.3%)등으로 나타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 자녀의 신앙 계승 정도' 조사에서는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다 (20.3%)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다 (47.9%) ▲부모보다 잘 못할 것 같다 (14.5%)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다(9.1%) ▲잘 모르겠다 (8.2%) 등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의 경우 첫째 자녀와 둘째, 셋째 등으로 구분했는데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정예배와 자녀의 신앙 전망간 상관관계 조사에서는 학창시절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린 자녀의 경우 ▲부모님보다 더 잘할 것 같다 (28.9%) ▲부모와 비슷할 것 같다 (53.0%) ▲부모보다 잘못할 것 같다 (15.6%)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1.3%)▲모르겠다 (1.3%)로 나타나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낮아 이 역시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부모님의 삶과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다'의 여부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6.4%) ▲별로 그렇지 않다 (33.3%) ▲약간 그렇다 (29.2) ▲매우 그렇다 (18.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6.9%) ▲별로 그렇지 않다 (21.4%) ▲약간 그렇다 (42.1%)▲매우 그렇다 (29.6%)로 나타났다. 이 항목의 경우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47.4%),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싶다 (71.7%)로 나타나 어머니의 신앙을 닮고 싶다는 견해가 월등히 높았다.

한편, 한국교회연구센터의 이 같은 조사는 여러 항목에 걸쳐 이뤄졌지만 지면 관계상 매우 중요한 사항만을 선별했음을 밝힌다. 〈편집부〉

"평생을 찬양의 자리에 있고 싶어요"

문병엽 안수집사-박민경 집사 부부



문병엽 안수집사-박민경 집사 부부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코로나가 시작할 무렵에 우리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으니 4년 남짓 되었다. 교회 등록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찬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들 부부가 있다.

문집사는 2부 예배 전 찬양팀 싱어로, 박집사는 드럼을 치는 드러머로 봉사한다. 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문집사는 찬양 인도자로, 박집사는 '콩가'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성도들의 뜨거움을 이끌어내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남편의 머리색에 맞춰 염색까지 하고 등장하는 등 완벽한 케미를 갖춘 부부찬양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금방 그들 부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문집사는 어쩌면 약간 어눌한 말투로 찬양을 이끄는데 그 말 속에는 오직 진실함이 묻어난다. 진실은 달변이 아니라 눌언(訥言)이라고 했던가.

이들 부부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노라면 찬양이 삶 속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민경 집사는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드럼과 콩가 등 악기를 배워 찬양의 자리에 섰고 문집사는 찬양이 좋아 오래전부터 노래를 불렀다.

특히 교회의 찬양팀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발 벗고 나섰다. 지하 1층 찬양단 연습실의 믹서 앰프 신디사이저 드럼 등을 구입해 주었고, 중고등부 찬양팀이 마음껏 찬양할 있도록 고가의 드럼도 바꿔주었다. 최근에는 본당 모니터 시스템을 모두 교체해 주는 등 주님을 찬양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일단 바꿔주어야 직성이 풀리는 행동파들이다.

이들은 어떻게 부부의 연을 맺었을까? 두 사람 모두 화순출신이다. 문집사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박집사는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집사의 형수가 중매를 서서 결혼했고 두 사람은 찬양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쉽게 친해졌다.

문집사는 어린 적 동네교회 여전도사의 인도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 박집사 역시 어린 시절 교회의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후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품고 있다. 박집사는 유치원를 그만두고 한동안 아이들의 블록학원을 운영하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음악학원에 다니면 드럼과 콩가 등의 악기를 배워, 현재는 젬베와 타악기를 가르치며 찬양과 악기로 섬기고 있다. 특히, 10여 년 전 금요 찬양예배에서 드럼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즉시 순종하며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주님께서 주신 리듬감의 은사를 통해 봉사와 직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며,"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환한 웃음을 보였다.

문집사는 결혼과 함께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큰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그가 건설회사를 그만 둔 것은 주일 성수가 힘들었기 때문. 지금은 온종일 주일성수를 할 수 있어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한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 성윤군은 중국 상해 푸단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고, 딸 이선양은 미 동부 Ivy리그 명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문병엽-박민경 집사의 꿈은 소박하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비전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이루어 나갈수 있는 기도의 가정이 되는 것뿐. 무등의 온 성도가 이 가정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합심기도해야 할 것 같다.

〈이경수 안수집사〉

칸타타로 올려드린 성탄감사예배



2024년 성탄감사예배가 1, 2부로 나눠 오전 9시와 11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11절로 오용선 담임목사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설교를 통해 2천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가장 좋은 뉴스인 '복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2, 3부 연합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타가 올려졌다. 3부 성가대 김종헌지휘자의 지휘로 올려진 곡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어린 주 예수 ▲천사들의 노래 ▲오 거룩한 밤 등 4곡이며 이어서 관악부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이 메들리로 연주돼 큰 박수를 받았다. 또 하반기 세례식이 베풀어졌으며 예배가 끝난 뒤 예수님의 생일 축하하는 생일떡이 전성도들에게 나눠졌다. 〈현지훈 안수집사〉

2024년 은퇴예식 거행

원로장로 추대, 장로 ·안수집사·권사 등 31명 은퇴





김철환 장로



박종문 장로



지형원 장로



오정희 장로

2024년 은퇴예식이 지난 12월 15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진행됐다. 올해의 은퇴자는 장로 4명, 안수집사 8명, 권사 17명, 전입권사 2명 등 모두 31명이다.

이날 은퇴식에서는 26년간 시무장로로 봉사한 김철환 장로는 원로장로, 박종문 지형원 오정희 장로는 은퇴 장로 기념패와 함께 기념품을 전달받았다. 또 은퇴자 전원에게도 기념패와 기념품이 전달되었다.

한편, 김철환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에서 은퇴하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 면서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하고 무등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의 은퇴자는 다음과 같다.

▲은퇴안수집사=신문호 이연성 최창환B 신재민 문지훈 강성국 진상훈 김기수A(8명)

▲은퇴권사= 오향님 강연님 김정심 김정자 조영숙A 이남미 염영애 이숙희 김순임 전연호 설춘애 김선숙B 김정덕 이정화 권선숙 강태영 정명숙(17명)

▲전입은퇴권사= 정영순B 오귀례 (2명)

창립 39주년예배 성료

30년 출석자 29명 표창

우리교회는 지난 11월 17일 창립 39주년을 맞아 기념예배와 30년 장기출석자 29명에 대한 30년 출석 기념패와 성경책 1권씩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예배는 진명옥 원로목사의 '정으로 사는 것'이란 체험적 설교를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30년 장기출석자는 다음과 같다.

김혜영 김영은 김현주 강상춘 오미경 고영화 이영숙 박인숙 양육두 김형진 김금준 나옥희 최상석 반임순 서선희 김선희 김종기 정옥자 이홍영 정관봉 임영자 김영석 설춘애 강영민 김명철 박은진 이종남 오재상 박순주(29명 등록순)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주무등교회

www.mdch.or.kr



원로목사 진 명 옥



담임목사 오 용 선

구분	시간	장소
주일 1부	오전 07:30	본 당
주일 2부	오전 09:30	본 당
주일 3부	오전11:30	본 당
주일오후	오후 2:00	본 당
수요예배	오후 7:30	본 당
금요심야	오후 8:30	본 당
새벽기도	오전 5:30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영 아 부	오전 09:30	지하1층2관
유아유치부	오전 09:30	지하1층2관
유 년 부	오전 09:30	지하1층3관
초 등 부	오전 09:30	지하1층5관
중 등 부	오전 09:30	지하1층9관
고 등 부	오전 09:30	지하2층1관
청 년 부	오전 11:30	지하2층1관

62010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 19(매월동) TEL. 062) 373-0034 FAX. 376-6084

plus 칼럼

「축복」과 「강복」의 단어 바르게 인용하기



박형대 은퇴목사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축복〉이란 단어와 〈강복〉이란 단어를 혼동하지 말고 바르게 인용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축복〉이란 단어와 〈강복〉이란 단어는 근본적으로 뜻이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 [한국어 맞춤법 바로 알고 바로 쓰기 ① ②]을 저술하여 출판한 작가로서 항상 성도들이 기도 용어로 〈축복〉과 〈강복〉을 혼동하여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한자어 축복(祝福)은 "남 또는 남의 일이나 미래가 행복하기를 빌거나 그것을 기뻐하여 축하하는 것이다." 반면에 강복(降福)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다."

전 총회장 박종순 목사는 "부흥사들이 교인들과의 공감 형성을 위해 시도 때도 가리지 않는 남발이 이어지면서 '축복합니다.'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어떤 용어이든 사용빈도가 지나치면 설교 본론을 가리게 된다.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반복하는 것을 삼가는 게 좋다."라고 지적한 것이다. 故 정장복 박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등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신에게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 달라는 뜻이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어휘들을 사용하라."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정 교수의 제자로서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복(福)은 "인간의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정답은 하나님 아버지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복을 빌어 주시는 분이 아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강복이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민수기 6장 24~27절)

천주교 미사(Missa) 순서 맨 나중에 사제가 신자들을 향해 십자성호를 그으며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제가 강복 선언을 하는 것이다.

기독교 예배 순서 맨 나중에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도(축복기도)한다. 본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하였다. 대체로 합동, 고신, 개혁, 대신 등의 보수적인 교단은 지금도 "있을지어다."로 하고 있다. 다만, 본 교단은 1989년 총회에서 축도의 끝말을 "있을지어다."를 "축원하옵나이다."로 사용하기로 가결했다.

일반적으로 천주교 사제는 축복과 강복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 목사는 〈축복〉과 〈강복〉을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혼용한다. 여기서 성도들도 덩달아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해야 옳은 방법이다. 반대로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여 주세요."라고 하면 문법적으로 틀린 말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 주고 싶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하여야 한다.

지형원 장로 기도집 발간

'흙이라면 바람이라면'

전 성도 가정에 한권씩 증정



우리교회 지형원 장로가 기도집 '흙이라면 바람이라면'을 출간했다. 쿰란출판사 간. 12,000원.

표제인 '흙이라면 바람이라면'는 하나님이 흙이라면 그 속에서 움트는 새싹이 되고, 하나님이 바람이라면 바람과 함께 나뒹구는 낙엽이 되고'라는 뜻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담고 있다.

1, 2, 3부로 나눠진 이 기도집은 1부 '기도의 시' 2부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 3부 '특별한 날의 기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실린 80여 편의 기도문은 지형원 장로가 10여 년 동안 장로로 시무하면서 썼던 대표기도문과 특별한 날의 기도문을 묶은 것이다.

축간사를 쓴 분당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지형원 장로의 기도문은 지금까지 출간된 기도문과 사뭇 다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산길을 걸으며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일상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하나남께 귀엣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

지형원 장로는 광주일보 문화부장과 논설위원 편집국장을 역임했으며 전라도문화포털 '문화通' 발행인,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지원포럼 회장 등을 지냈다. 〈나강열 안수집사〉

교회 첫 '오는 선교팀' 맞아 풍성한 은혜 나눔

일본 오야마기독교회 선교팀 초청 행사



7월 28일 주일 대예배 후 오는선교팀과 기념사진

우리교회는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오는 선교팀을 맞아 풍성한 은혜나눔을 가졌다. 우리교회를 찾은 선교팀은 일본 토오쿄 오야마기독교회(담임목사 쿠로야나기 토모히로, 선교사 김영희)로 지난해 여름 우리교회 고등부가 비전트립을 가진 것을 계기로 올해 탐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오는 선교팀'에는 오야마기독교회 소속 집사, 청년, 중·고등부 학생 등 12명이 참여했으며 우리교회 성도들 가정에서 1박을 하면서 한국인의 종교생활 이모저모를 살피고 개인적 친분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야마기독교회 선교팀은 7월 26일(금) 청주공항을 통해 입국해 4박 5일 동안 순교지 탐방, 아시아문화전당 방문, 한옥 체험 등 많은 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들 일행은 한국에 도착했던 첫 번째 날 우리교회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여 뜨거운 기도회 현장에서 두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였다.

두 번째 날은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야월교회 순교기념관과 증도 문준경전도사 순교기념관을 방문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배웠고 우리도 믿음의 본이 되자고 다짐하였다.

주일 2부 대예배와 청년부 예배는 일본인 쿠로야나기 목사가 설교(통역 김영희 선교사)를 진행했는데 쿠로야나기 목사가 동경대학교 법과 출신으로 좋은 직장 대신 목회를 하면서 있었던 체험적 신앙고백을 통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남겼다.

네 번째 날은 순천시에 위치한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방문하고, 광주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프론티어 여름캠프'에 참가하여 '기도함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4박 5일의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다.

마지막 날인 7월 30일(화)에는 천안시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에 방문하여 복잡한 한일관계가 무엇 때문인지 앞으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야마기독교회와 우리교회의 인연은 과거 우리교회가 일본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해 왔으며 2024년 초 새성전건축 소식을 듣고 건축비 2,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우리의 후원이 더해져 지난 10월 새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렸으며 내년 부활절을 전후해 입당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오는 선교팀을 맞아 홈스테이에 참여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지형원장로/박유순권사, 최용진장로/박서경권사, 이종남장로/나옥희권사, 김경수집사/송연하권사, 황생동집사/신혜선권사, 문은철성도/조은진권사 가정 등이다. 〈이성운 교육목사〉

추수감사절 쌀 415포대 나눔 행사



서구청장 – 목사님 전달사진

우리교회는 지난 10월 27일 추수감사주일로 지켰다. 이날 예배는 1부와 2, 3부 통합예배로 오전 10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로 드려졌다. 우리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 쌀을 모아 이웃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는데 이날 2,500만원 상당의 쌀 415포대가 모아졌다.

이 쌀은 광주시 서구청에 200포대가 전달돼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등교회 이름으로 나눠졌으며 117포대는 전남노회가 추천한 41개 미자립교회에 그리고 나머지 98포대는 우리교회 성도들과 불우이웃에게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박창민 집사〉

교회단신

'러시안교회 고등부' 초청 예배 진행



우리교회 고등부는 지난 10월 20일 광산구에 위치한 러시안교회 고등부 학생들을 초청,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러시안 교회는 개척된지 8년이 된 순수 러시안 사람들의 교회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러시아 언어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이다.

이날 초청예배에서는 고등부가 추수감사절을 통해 6주 동안 모아온 컵라면, 과자, 견과류, 파래김, 카놀라유, 두루마리 휴지, 햇반, 쌀국수, 사탕, 젤리 등 감사 물품도 전달했다.

한편 고등부는 추수감사 주일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손이가요! 손이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왔다.

〈이성운 교육목사〉

엄마와 함께 하는 짝기도 CIP

21개 팀 42명 참여 성료



'엄마와 함께 하는 CIP(Children In Prayer) 세미나'가 광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월 12일(토)과 19일(토), 2회에 걸쳐 광주무등교회에서 개최되었다.

CIP는 엄마·아빠와 할머니, 교사 그리고 자녀가 짝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4단계(찬양, 고백, 감사, 중보)로 이루어지는 대화식 합심기도 훈련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다음 세대들을 온전한 예배자, 강력한 중보기도자,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양육하는 비전을 가지고 21개팀 42명이 참여했다.

기도하는 아이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미래 세대와 엄마들의 교회 참석률이 높아지고,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게 되며, 3040세대 중심의 기도하는 부모 모임이 특화되는 등 다양한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성도에 따르면 'CIP세미나 이후, 집에서도 자녀들과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리는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짝기도 시간이 기다려진다' 라고 전해왔다.

한편, CIP는 MIP(Mother In Prayer)라는 1984년 캐나다의 네 자녀를 가진 가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중보기도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자 엄마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한 데에서 태동되었다. 현재는 기도하는 '청소년 기도모임(YIP)' 등으로 파생되는 등 전 세대 기도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현재 160여 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6년째 계속되고 있다. 본부는 1985년 캐나다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전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서울은혜교회 외(서울), 선한목자교회 외(수도권), 천안중앙교회 외(충청/강원권), 대구삼승교회 외(경북권), 창원한빛교회 외(경남권), 부산수영로교회 외(부산/제주권), 혜성교회 외(광주권) 등이 MIP를 사역하는 교회(지역)로 알려져 있다.

〈김유선 권사〉

제8기 바이블 아카데미 167명 참여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8주 동안 진행된 제8기 바이블 아카데미에는 모두 167명이 참여했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선교역사 탐방(전자룡 목사) 45명, 바이블산책(이동영 목사) 48명, 기독교 교리반(안재우 목사) 35명, 크리스찬 스타트반(최충희 목사) 39명이 참여했다. (명단은 2면 광고란 게재)

성경필사 11명 / 신구약 완독 202명

우리교회가 실시한 2024년 신구약 성경읽기 및 성경필사 행사에서 성경필사 11명, 신구약 완독 202명이 참여했다. 성경필사자는 송희정 김성심 김 건 김형선 김수진 이정자 손현주 이화현 최부식 박서경 김정희D 등 11명이며 신구약 완독자는 김경미 10회, 문정숙 8회, 최선금 5회, 김옥순 신정현 이영철 정남철 4회, 김경자B 서일성 조기문 조기석 안길례 정현미A 3회, 강경순 김애리 김용환 김향춘 박두래 박상규 박석우 서필녀 오금순 이맹순 이삼림 이선화 이은숙 이주연 홍영주 황필순 홍미영 (1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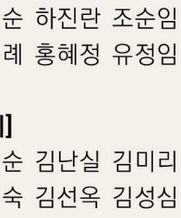
▲ 1회 : 강경순 강귀심 강민아 강순심 강연님 강해경 강현희 강효주 고상미 고신자 고현남 고현자 공점숙 김 현 김경미 김경희 김기수A 김기수B 김기영 김동현 김문환 김미리 김미숙 김병완 김보훈 김복남 김봉순 김선란 김선숙B 김선순 김선옥A 김선희A 김성심 김소희 김숙희A 김영석 김영옥 김영지 김영철 김용구 김유선 김인숙D 김일섭 김정심 김정아A 김준순 김진이 김판수 김현숙 김형선 김혜림 김혜숙 김화순 김희영 나강열 나기윤 남미경 노민정 명윤식 명현아 모성은 문명진 문현숙 민홍준 박경일 박귀득 박금자 박기재 박봉자 박성완 박소희 박숙희 박유순 박은진 박정섭 박종욱 방정술 배준호 백옥자 서강희 서기종 서수희 서승락 서신혁 손은희 송연하 송성자A 송점순 송정효 송효진 송희정 송혜자 신신덕 안난순 안옥자 양정숙B 오기열 오기중 오미경 오정희 오향님 윤순미 윤재호 윤정희 윤준호 이경민 이경수 이경자 이금숙 이민섭 이봉금 이석기 이선화 이소윤 이연성 이정률 이정수 이정자 이한룡 이희숙 임옥자 임주택 임영임 임회자 장성애 장은주 전다영 정경원 정관복 정기문 정미숙 정세기 정영숙 정윤례 정이순 조영자 조영주 조은진 조점기 주미례 주숙녀 진명옥 차지현 최광수 최기욱 최대삼 최만임 최맹주 최상선 최재봉 최정님 최행순 최형숙 한연심 한종숙 허순애 현지훈 현지희 황명심 황정민 이타관 김정은 오순지 정영순 배준호 최유실 김윤식 김길량 김영희 황민효 조준남 김영숙(172명)

▲ 신약, 시가서

▲ 10회 : 신신덕 (1명)

▲ 1회 : 김동오 김병완 나선례 서아영 송근오 안길례 이연성 이정수 정세기 차광열 최숙희 (11명)

이동영 목사 '기뻐하는 교회' 개척



우리교회 이동영 부목사가 교회 개척을 위해 지난 11월 24일 오후 찬양예배 고별설교와 함께 사임했다. 이 목사는 2018년부터 6년 동안 우리교회 부목사로 시무해왔으며 오는 12월 광주 첨단2지구내 (쌍암동 임방울대로 785번지) 지역에 '기뻐하는 교회'를 개척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고별설교를 통해 '부족한 사람을 따스한 정으로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면서, '무등에서 받은 용기와 사랑을 근간으로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지역사회와 열방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우리교회는 이 목사의 개척을 위해 개척헌금 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024년 성경필사 및 성경읽기 명단

(2024년 12월 22일 기준)

[성경필사]

▲ 송희정 김성심 김 건 김형선 김수진 이정자 손현주 이화현 최부식 박서경 김정희D (11명)

[성경읽기]

▲ 10회 : 김경미(1명)

▲ 8회 : 문정숙(1명)

▲ 5회 : 최선금(1명)

▲ 4회 : 김옥순 신정현 이영숙 정남철(4명)

▲ 3회 : 김경자B 서일성 조기문 조기석 안길례 정현미A(6명)

▲ 2회 : 강경순 김애리 김용환 김향춘 박두래 박상규 박석우 서필녀 오금순 이맹순 이삼림 이선화 이은숙 이주연 홍영주 황필순 홍미영 (17명)

▲ 1회 : 강경순 강귀심 강민아 강순심 강연님 강해경 강현희 강효주 고상미 고신자 고현남 고현자 공점숙 김 현 김경미 김경희 김기수A 김기수B 김기영 김동현 김문환 김미리 김미숙 김병완 김보훈 김복남 김봉순 김선란 김선숙B 김선순 김선옥A 김선희A 김성심 김소희 김숙희A 김영석 김영옥 김영지 김영철 김용구 김유선 김인숙D 김일섭 김정심 김정아A 김준순 김진이 김판수 김현숙 김형선 김혜림 김혜숙 김화순 김희영 나강열 나기윤 남미경 노민정 명윤식 명현아 모성은 문명진 문현숙 민홍준 박경일 박귀득 박금자 박기재 박봉자 박성완 박소희 박숙희 박유순 박은진 박정섭 박종욱 방정술 배준호 백옥자 서강희 서기종 서수희 서승락 서신혁 손은희 송연하 송성자A 송점순 송정효 송효진 송희정 송혜자 신신덕 안난순 안옥자 양정숙B 오기열 오기중 오미경 오정희 오향님 윤순미 윤재호 윤정희 윤준호 이경민 이경수 이경자 이금숙 이민섭 이봉금 이석기 이선화 이소윤 이연성 이정률 이정수 이정자 이한룡 이희숙 임옥자 임주택 임영임 임회자 장성애 장은주 전다영 정경원 정관복 정기문 정미숙 정세기 정영숙 정윤례 정이순 조영자 조영주 조은진 조점기 주미례 주숙녀 진명옥 차지현 최광수 최기욱 최대삼 최만임 최맹주 최상선 최재봉 최정님 최행순 최형숙 한연심 한종숙 허순애 현지훈 현지희 황명심 황정민 이타관 김정은 오순지 정영순 배준호 최유실 김윤식 김길량 김영희 황민효 조준남 김영숙(172명)

제8기 무등 바이블 아카데미 참여자 명단

[선교 역사 탐방]

김미리 오미경 김병완 김형선 김현숙A 김성심 김선옥 이은자 정숙향 박근희 남미경 김옥희B 김혜숙A 김청님 이경수 윤정희 김난실 김정희B 강연님 정서금 김수진 이선화 조순임 김선숙B 김영숙 정영순 최행순 정이순 이화현 임회자 김선희 최광수 조기문 김영님 주숙녀 안난순 정현순 김희자 김혜림 홍혜정 이소윤 박경자 김종기 조영자 염주열 (45명)

[바이블 산책]

고신자 고현남 공점숙 김금순 김기영 김난실 김미리 김선숙B 김선숙C 김선옥 김선희 김수진 김순아 김옥희B 김정숙 김정희B 김청님 김평순 김형선 김현숙 김혜림 김희자 강행좌 남미경 모성은 박경자 박옥란 박종욱 우주연 유은숙 윤정희 이소윤 이은자 임회자 정숙향 정영순 정현순 주숙녀 주몽화 지연주 최만임 최행순 하진란 조순임 윤옥자 정윤례 홍혜정 유정임 (48명)

[기독교 교리]

공점숙 김금순 김난실 김미리 김병완 김선숙 김선옥 김성심 김수진 김옥희B 김유선 김정희 김청님 김형선 김혜림 김희자 남미경 박소희 서선희 오미경 윤정희 이소윤 임근희 정숙향 정영순 정윤례 정윤옥 조순임 주숙녀 지연주 최만임 최민영 최정님 최형숙 조유미 (35명)

[크리스찬 스타트]

강영옥 고상미 공점숙 김미리 김미순 김보훈 김선숙B 김수지 김수진 김예남 김정헌 김정희B 김지환 김 필 류명희 류현주 박근희 박수란 박창민 윤순미 윤장범 윤재호 이승배 이종남 임회자 정기문 조순임 채석원 최만임 최선금 최은정A 최정은 최형숙 최행순 하진란 한아람 현지훈 현지희 홍영주 (39명)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성탄 축하 발표회

우리교회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준비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지난 22일 주일 오후 예배시간에 펼쳐졌다. 고등부 김예서양과 김총명군의 사회로 80여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영유아유치부의 문다윤· 정로하 어린이의 무대를 인사말로 시작해 영유아유치부 율동과 초등부 워십 메들리, 고등부 워십과 유년부 율동, 그리고 아프리카 민속악기 잼배 특별연주, 중등부와 청년부가 차례로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으며 모든 출연자들이 무대에 올라 '천사들의 노래가'를 부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행사 이모저모를 화보로 싣는다.


무대인사를 맡은 영유아유치부 문다윤-정로하 어린이


사회를 맡은 고등부 김예서-김총명


유년부 율동



초등부 워십 메들리



출연자 모두가 무대에 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합창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중등부 율동합창



고등부 워십 - 기쁜 소리



청년부 밴드 율동

성경 연대기 연구

성경 속 인류 역사는 약 6200년

아담이 태어난 BC 4174+2024년


강상춘 장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 이후의 연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 놀랍게 생각했다.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의 연대를 계산하여 보면 약 6,200년 정도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성경말씀을 무심코 읽어갈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창세기 5장을 꼼꼼히 읽던 중 노아 때까지의 연대가 정확히 기록되었음을 깨달았다. 노아의 홍수 때까지의 연대를 계산하여 보니 1656년이 정확히 산출되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와 6장 7장을 읽어보면 다음 표와 같이 아담 이후 1656년에 하나님은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켰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온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창11:10)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발생하였으므로 602살 되던 해이다. 노아 602살에 손자 아르박삿을 낳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02살 된 노아는 100년 전에 셈을 낳았기에 502살에 셈을 낳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창세기 5:32) 노아는 셈을 502살에 낳았으므로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은 함과 야벳 중 한 사람이 분명하다. 함은 창세기 9장 24절에 작은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노아가 500세에 낳은 아들은 야벳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창세기 11장은 예수님의 직계 조상 셈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셈의 후손들도 후손의 출생 나이와 조상의 수명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연대를 측정할 수 있다. 셈의 족보는 역사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았으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후부터는 후손이 출생한 때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야곱은 애굽에 들어갈 때 나이가 130살이었으며, 애굽에서 17년 거주하다 147세에 죽었다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556년+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452년+ 이삭부터 야곱까지 160년이므로 아담부터 시작하여 야곱이 태어난 때까지 다 더해보면 2168년이 된다. 즉 아담부터 시작하여 야곱이 태어난 때는 2168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켜 준 내용대로 정확히 정리되어 있다.

야곱이 태어나서 130살에 애굽에 들어 갔으므로(창47:9) 아담부터 시작하여 야곱이 태어난 때는 2168년이다. 애굽에 들어간 나이 130년을 합하면 2298년으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는 아담부터 2298년이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하였다고 하였으므로(출40~41)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때 2298년에 430년을 합하면 2728년에 출애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2728년이다.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출애굽 연도는 BC 1446년으로 애굽의 역사 기록으로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임호텝(요셉)에 관한 돌판기록 및 역사서]

: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역사적 객관적으로 확인된 BC년도의 기록으로써 출애굽연도는 BC 1446년이다.

성경에 근거하여 아담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까지의 연대는 2728년이고, 역사적 객관적 출애굽 년도는 BC 1446년이므로 더하면 4174년이 된다. 아담이 창조된 년도를 BC로 표시하면 BC 4174년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신 년도는 BC 4174년이다.

BC 1446년에 애굽거주 430년을 더하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나이 130을 더하면 BC 2006년이 되므로 야곱이 태어난 년도를 BC 년도로 표시하면 야곱의 출생년도는 BC 2006년 이다.

아담이 창조되어 태어난 연도는 BC 4174년이다. 현재 AD 2024년입니다. 더하면 아담 이후 현재까지의 성경적인 인류 출현 연도는 6198년으로 추정 가능하다. 지금부터 6198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셔서 탄생시켰다는 얘기다.

성경은 연 단위로 기록되어 있어 출생 월 단위 표현이 생략되었으므로 아담부터 야곱까지의 대수가 22대이므로 월 단위의 최고 편차를 인정하더라도 22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6198년에 + 22년 범위가 아담 이후 오늘날 인류 역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인류역사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6198년이라면 아담이후 홍수 발생의 때 1,656년을 차감하면 홍수 이후의 연도는 지급부터 4542년 전이 된다. 노아의 홍수는 지금부터 4542년 전에 발생한 것이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악으로 인해 다 죽고 가장 의로운 노아의 8식구만 살았으므로 실제 우리 조상은 노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아의 후손 8명이 4542년 동안 증가하여 오늘날 인구 80억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계산하여 보면 약 150년 마다 인구가 배로 증가하였음이 계산상 산출된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우리 인류 역사는 그렇게 오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연대기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의 기록도 찾아보았으나 상기 내용과 비슷하였음을 밝힌다.

아담의 계보 (창세기5:3~32)

대수	역대 조상 이름	후손 출생 나이	후손이름	조상의 수명	비고
1	아담	130	셋	930	가인 아벨 셋
2	셋	105	에노스	912	
3	에노스	90	게난	905	
4	게난	70	마할랄렐	910	
5	마할랄렐	65	야렛	912	
6	야렛	162	에녹	962	
7	에녹	65	무두셀라	365	무두셀라를 낳은후 3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승천
8	무두셀라	187	라멕	969	
9	라멕	182	노아	777	
10	노아	500	야벳	950	500세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음
	100년 후 홍수시작	100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창7:6)
합계		1,656			홍수는 1656년에 일어났으며, 노아가 야벳을 낳을 때는 1556년임.

셈의 족보 (창세기11:10~26)

대수	역대 조상 이름	후손 출생 나이	후손이름	조상의 수명	비고
	노아	502	셈		노아 500살에 야벳을 낳고 502살에 셈을 낳음. 10대 노아가 야벳을 낳은 때를 1556으로 계산하였기에 2년을 추가 함.
11	셈	100	아르박삿	600	노아의 차남 셈으로 이어지는 족보임
12	아르박삿	35	셀라	438	
13	셀라	30	에벨	433	
14	에벨	34	벨렉	464	
15	벨렉	30	르우	229	
16	르우	32	에녹	239	
17	스룩	30	나홀	230	
18	나홀	29	데라	148	
19	데라	70	하란	205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11:26) 실제 장남은 하란임
	데라	130	아브람		하란에서 데라가 죽을 때 205세였으며 (창11:32), 아버지가 죽자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사행7:4)이었으므로 차감하면 데라는 130세 아브라함을 낳았음을 알 수 있음
합계		452			

지금 우리부에서는 / **드보라 선교단**

"무등교회 소속의 세계적(?) 몸 찬양팀"



우리 무등교회의 숨겨진 자랑 하나가 드보라 선교단이다. 우리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을 누비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하는 유명한 몸 찬양팀이다. 여기에 세계적(?)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우리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비롯해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예배 때 화려한 율동과 부채춤으로 박수를 받았던 그 팀, 그 드보라 선교단이 유럽과 아프리카, 캐나다, 인도, 일본, 러시아, 미국, 필리핀,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 몸짓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우리 무등교회의 이름을 만방에 떨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이스라엘 세계 축제에 참가하여 힌놈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지난해에는 7월 일본 선교와 11월에는 베트남 선교를 진행했으며, 12월에도 부산포도원교회와 돌선교회에서 사역을 펼쳤다.

"소고치며 춤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성경 말씀을 따라, 찬양과 몸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복음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호흡이 있는 한 계속하고 싶습니다" 드보라 선교단의 창단 주역이자 리더인 유정님 권사는 몸찬양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보라 선교단이 창단된 것은 1997년. 유정님 권사는 무용 전공자가 아님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몸찬양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되었고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스승을 찾아다니며 피나는 노력을 경주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생기자 무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한때는 5, 6명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드보라 선교단이란 명칭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선지자 드보라에서 따왔으며 무등교회 최초 선교단이란 상징성도 갖고 있다.

창단 이후 여러 사람이 몸 찬양을 배우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주숙려, 최영옥, 송옥희 권사 등 4명. 이들은 한결같이 "입으로 전도하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전도하자"라는 각오로 봉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광주무등교회가 연습실을 제공해 주었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후원해 주신 부분도 있었지만 특히 가족의 도움이 없었으면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몸 찬양은 세계 어디에서도 통하는 최고의 언어"라고 자랑한다. 특히 한국 전통 무용과 화려한 의상, 부채와 소고 등 소도구를 들고 춤을 추면 뷰티풀 코리아,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때는 감격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한다.

최영옥 권사는 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옮겼고, 주숙녀 권사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선교단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송옥희 권사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몸 찬양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웠다고 말한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의상비와 선교 비용 등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 선교의 경우에는 많은 고충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그만 둘 수 없어 계속하고 있는 것.

"몸찬양은 목소리로 드리는 찬양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며, 호흡이 있는 한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청년부 박민지〉

간증

주님을 만난 그때



서재민 안수집사

서른을 막 넘긴 어느 날 새벽 옆자리가 허전하여 누워서 손을 더듬어 보니 아내가 없었다.

'어라 이것이 뭔 일이여!' 젊은 나이에 사업한답시고 매일 술만 먹고 들어오니 아내는 교회에 마음을 주었던 것 같다. 그날도 새벽 기도회에 갔던 것이다. 어느 새벽에는 일어나 뒤를 밟았다. 주월동 청산 아파트에서 무등시장 쪽에 있는 교회였다. 비닐하우스에 보온재로 덮어진 천막 교회. '평안교회'라고 붙여진 간판 불빛이 흐릿했다. 가만히 문을 열어 보니 열 명도 채 안 되어 보였는데 머리를 숙이고 무어라 중얼거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속으로 '허허 이것들이 지금 뭣 하는 짓이여!' 여러 생각이 들었으나 그냥 집으로 걸어왔다. 어떻게든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트집을 잡아 혼내줄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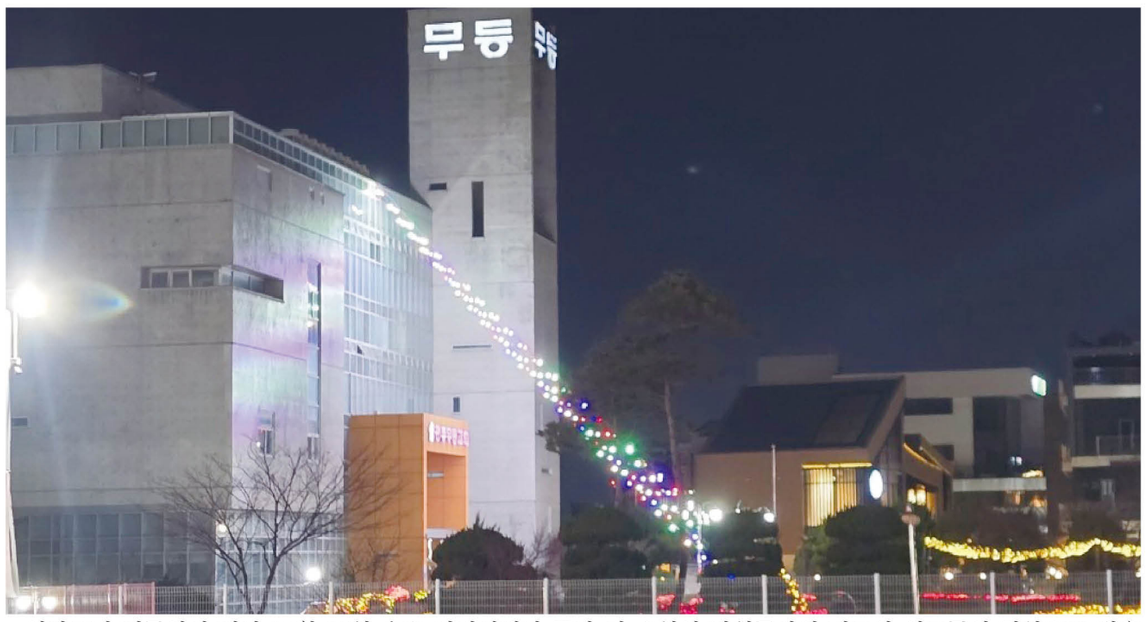
그러나 아내는 교회 나가는 일 만큼은 완강히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 '순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이걸 어쩌지'하며 고민하던 중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말 알 수 없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다른 날 보다 일찍 귀가한 어느 날 그때는 몰랐는데, 집안 거실에 여러 명이 모여 '구역 예배'라는 것을 드리고 있었다.

얼마 후 구역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도망치듯 흩어졌고 아내는 내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나는 뭔가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실에 놓여 있던 성경 책을 발견하는 순간 축구공 차듯 이 성경 책을 발로 힘껏 차버렸다. 거실 벽에 부딪힌 성경 책은 몇 조각으로 분해돼버렸다. 그런데 문득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광주공원 옆 '신광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묘한 감정이 교차되었다.

며칠 후, 아침에 잠에서 깨었는데 내 목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하였다. 어제 저녁 잠자기 전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무언가로 내 목구멍을 막아 버린 것처럼 굳어져 있었다.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침만 질질 흘리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약국을 찾아갔으니 그날이 일요일이라 약국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지 모를 일인데 며칠 전, 성경 책을 발로 차버린 사건이 번뜩 기억이 났다. '아하! 이것은 병이 나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친하게 지내는 교회 집사님 형님댁에 찾아갔다. 형수님은 그때 교회 권사님(현재는 전도사)이셨는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여러 성도들에게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 나도 혹시나 하고 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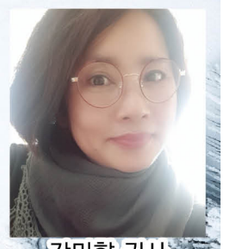
그러나 문이 잠겨 있어 그냥 돌아가려다가 상황이 너무 다급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나타났다. 형수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함께 집으로 들어가 기도를 해주셨다. 생전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받아봤다. 그날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 주셨고 찬송을 계속 부르라고 하시면서 테이프도 하나 건네주셨다.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복음성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 했나요'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계속 따라 불렀다. 마음속으로 따라 부를 때면 목구멍이 좀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계속 불렀던 것이다. 새벽녘이 되서야 잠깐 잠에 들었다. 일어나 눈을 뜨자마자 목부터 만져 보았다. '허허 어찌 이런 일이!' 침이 꼴딱 삼켜지는 것이었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 일 이후 주일만 되면 아내랑 같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할렐루야-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 11월 27일 수요 저녁예배가 끝난 뒤 오영선 담임목사의 기도와 성도들의 찬양으로 빛을 밝혔다. 이 성탄트리는 집사회 주관으로 설치되었는데 최인영 안수집사가 회사 직원들까지 동원해 세상을 밝혔다.
〈사진=김정헌 안수집사〉

하늘의 음성

숨구멍 줄기가 하늘에 닿는다
코에 불어넣은 생명의 발버둥
기도가 되어 그 줄기를 타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
심장이 뛰는 말씀에
더 밝아지는 눈동자,
생명수 가득 어둔 세상
말갛게 씻는다



강미향 권사

새신자 간증

"다시 만난 하나님"



최승자 성도

제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았지,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모시고 살았습니다. 10살 때 엄마를 잃고 큰 슬픔에 빠져있을 때 옆집 언니를 따라 매일 성당에 매일 다니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슬픔을 극복했었습니다. 5년 정도 열심히 성당을 다녔는데 다른 분들은 영세를 받았지만 저는 대모(代母)도 없어서인지 영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큰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는 생각에 하나님과 성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15살이 되던 해, 아버지까지 돌아가시자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서울로 상경해 홀로서기를 하였고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섬에서 교편생활을 하였는데 어딘가로 이동할 때에는 작은 통통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번은 2살 된 아들과 6살 된 딸과 함께 작은 통통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는데 아파트 15층 정도 되는 큰 파도와 엄청나게 내리는 비를 만나 어둡고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서 9시간 정도 사투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장님은 땡땡땡 종을 울리며 우리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수 년 전에 의지했던 하나님이 떠올라 '울고~불며~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고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배에는 2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밤을 세우고 다음 날 날이 밝아진 후에 파도는 잠잠해지고 우리는 다시 섬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섬사람들은 우리가 그날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다 죽었을 거라고 장례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족과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살려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6살이었던 둘째 딸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수 십 년을 기도했었고 마침내 무등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저는 또 삶에 묻혀 살다 보니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아직은 믿음이 없는 부끄러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6년 전 팔순을 한 해 앞둔 해에 신랑이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아무런 경황도 없을 때 둘째 딸의 부탁으로 해남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새벽 2시 늦은 시간에 해남에서 광주까지 얼굴 한번 보지도 않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위해 기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식구들은 일제히 "아멘" 하고 "아~ 아빠 천국 가셨다." 하고 안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신랑이 천국에 가게 되면서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선물로 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기도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우리 둘째 딸의 수 십 년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딸들이 저보다 먼저 무등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해도. 어릴 때 상당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라고 되풀이하다가 둘째 딸의 강권으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살 때 큰 슬픔에 빠졌을 때 너무나 의지했던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저를 챙겨주셨던 많은 분들로 인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서운함과 억울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만나고 싶은 하나님! 열심히 다니고 싶은 무등교회를 다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딸들하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들 웃으면서 반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 좋습니다. 교회에서 먹는 밥도 정말 맛있고 다 좋습니다. 저는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필사 간증

주님과 대화하는 맘으로



박서경 권사

먼저, 성경 필사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믿음도 약한 제가 성경 필사를 마음먹었을 때,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다.

2021년 새해 소망을 담은 기도문을 작성하며, 3년을 목표로 하여 2024년 11월 교회 창립 39주년에 맞춰 완필하겠다고 다짐했다. 필사를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 지루하지 않게 신약부터 시작하고, 매일 일정한 분량을 정하여 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다. 생활의 리듬이 깨질 때는 건너뛰기도 하였고, 장시간 필사를 멈췄을 때는 기도와 간구로 주님을 붙들곤 했다. 미뤄진 숙제를 하나님께 혼날까 걱정하며 한꺼번에 몰아서 쓴 날도 있었다.

성경을 쓰다 보면 어깨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여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돋보기를 써가며, 인내하며, 한 자 한 자 차분히 쓰고 또 썼다. 아픔과 고통을 참으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새 주님과 대화하는 듯한 은혜로운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 필사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 걱정과 근심을 잊고,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푸른 초장에 앉아 쉬고 있는 듯한 평안함을 느꼈다.

처음 계획대로 일정한 시간과 분량을 지키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하루 부족했던 분량은 다음 날 보충하며 기도와 함께 써 내려갔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믿음은 얼마나 되는가?"
"내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믿음과 행함은 어떠한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약을 마치고 구약을 시작했을 때, 성경의 절반을 완성했다는 뿌듯함이 마음에 가득했다.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 등 한 권 한 권을 완성해 갈 때 느꼈던 기쁨과 만족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다. 그러나 시편 119장을 쓸 때는 끝이 보이지 않아 다윗을 원망했던 기억도 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마치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천국 문에 들어서는 듯한 기쁨을 느꼈다. 금은보화보다 더 큰 감동이었다. 지금까지 써 온 필사 노트를 한데 모아 안고, 그동안의 추억을 되돌아보았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쓰던 순간들, 추운 겨울 언 손을 녹여가며 비틀거리던 글씨를 쓰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은사로 완성된 것임을 믿는다, 이번 성경 필사를 통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봉사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저를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시어머니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생전에 주일 아침마다 전화로 "오늘 얘 아빠 손잡고 교회 가거라"라고 당부하시던 어머니였다.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 주셨기에 세 아들을 장로로 세우셨고, 한 며느리까지 장로로 부르심 받게 하셨다. 저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다짐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31)

가정을 통해 주께로 나오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린다.

무등plus 편집위원

지 도 목 사 : 최충희
편집위원장 : 지형원
편 집 위 원 : 이종남 정기문 김명순 김정헌 박민지 박창민 이경수 조유진 채석원 최 현 현지훈

"하나님의 젓가락"

바이블 아카데미 - 간증



김지환 청년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는 김지환 청년입니다. 제가 무등교회로 출석한지 약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은 '병아리 크리스천'입니다. 늘 명확하게 말할 순 없었지만 제 안의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주일만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할까?""크리스천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기도는 왜 이리도 어려운 걸까? 또 어떻게 하는 게 옳은걸까?"

그래서 저의 많은 부분의 기도와 바람은 제가 더 '주님을, 믿음을, 알게 해주세요.' 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주제로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녁 8시! 그리고 온라인 ZOOM을 통해서 진행하신 덕분에 평일 회사일을 마치고, 퇴근 후 참석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천 스타트를 통해서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생활 부터 예배생활, 기도생활, 나아가 교회와 가정, 사회생활까지 어떠한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어려웠었던 점들이 답답한 부분들이었는데 기도를 연습하고, 매순간 기도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에 소리내어 기도 연습을 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를 기대하며, 퇴근이 늦는 날에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온라인 줌(ZOOM)에 입장하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이블 아카데미의 마지막 강의는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자연스럽게 젓가락이 향하듯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하기 위해 대접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믿어보자는 것입니다. 강의 주제에 맞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수업 시간을 통해 크리스천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을 배울 수 있는 성령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 후에 가졌던 소모임에서는 신앙의 선배님들이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이야기들을 듣고, 나누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귀하고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동안 잊고 살고, 때로 부정하기까지 했던 못난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다시 불러 주신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저는 더 알기를 원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크리스천 스타트' 였습니다.

이 과목을 참여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은데 매주 강의해 주신 최충희 목사님과 함께 수강하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펜젤러와 문준경 전도사의 희생과 헌신"



이화현 권사

'제8기 바이블아카데미 선교 역사탐방'을 통해서 만난 아펜젤러 선교사와 문준경 전도사의 희생과 헌신이 지금토록 가슴에 먹먹하다. 140년 전 한국 땅에 들어와서 풍토병으로 가족과 어린 자식들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신 선교사들의 순교지를 다녀온 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에서 목포로 가는 길에 해상 사고로 선교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최초의 선교사 중 한 명인 아펜젤러의 슬프고도 장엄한 선교 활동을 보면서,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정과 희생에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 견학하는 동안 주룩주룩 비가 내려 옷자락이 젖고 신발이 젖었어도 서로 서로 쳐다보며 웃는 얼굴이 은혜의 꽃으로 보였다.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와 교육, 의료 사역을 보며, 온 힘을 다해 힘썼던 흔적들과 한국인의 결핵과 한센병 치료 사역에 최선을 다한 그 분들의 헌신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가.

진주처럼 빛나는 영롱한 1,004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신안에서 체험한 문준경 전도사님의 헌신 그리고 전남 영광의 194명의 순교자 기념관을 돌아보며,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바라보게 되었다. 우리 인생에 안락한 육신의 생활에만 관심을 걸었던 것을 회개하며,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 본다.

달리는 버스 차창 밖 찐빵집 전화번호를 기억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찐빵으로 섬겨주신 어느 권사님의 섬김도 감사했고, 이것저것 준비해 오셔서 버스 안에서 간식을 먹던 시간도 참 즐거웠다. 우리들을 위해 매주 맛있는 맛집을 알아보고, 선교지 해설과 안내를 해준 전자룡 목사님과 안전 운행을 책임져 주신 최광수 집사님께도 감사드린다.